조경수목산책 37

- 붉나무(I) -

임 경 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학박사

-그 붉은 단풍 -

1. 너무나 야생적인 나무

붉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지만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무척 적다. 그 이유는 이 나무의 쓸모에 관해서 오는 생각이라고 믿어진다. 이 나무는 굵고 높게 크는 나무도 아니요, 그 나무의 목재라든가 잎이라든가 여기에서 특별한 이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무에서 곁가지가 듬성듬성 나서 전체적인 나무의 모습에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도 붉나무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백담계곡 은선도의 단풍.

그래서 붉나무를 심어서 어떤 가치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거의 없다. 그러나 붉나무는 그 붉은 단풍으로 말미암아서 또 잎에 만들어지는 오배자라 하는 벌레집의 이용가치 때문에 붉나무는 일부 인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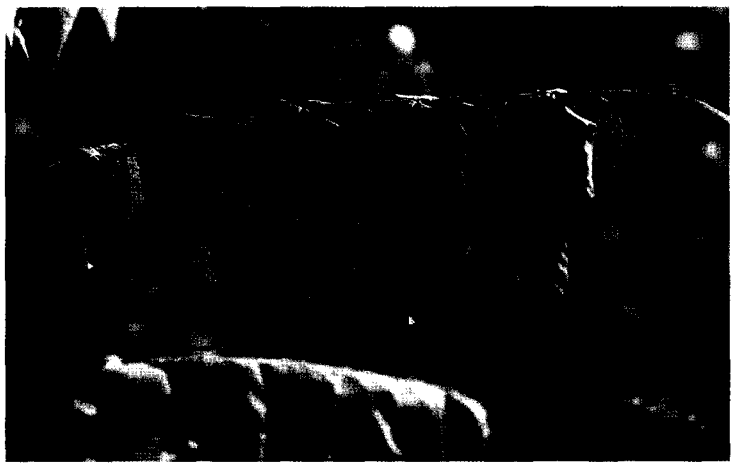
필자가 어느해 대청봉의 눈잣나무식생이 보고 싶어서 산림청의 헬리콥터를 응원받아 수원 농촌진흥청 건물이 있는 여기산 기슭 서호 옆을 출발하여 무사히 대청봉으로 가서 그 식생을 조사하고 또 무사히 돌아온 적이 있다.

그때는 날씨가 청명한 가을이었고 나뭇잎들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때였다. 나는 여기 농촌진흥청이 있는 여기산 기슭에서 아름다운 붉나무의 단풍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물론 사진기로 그 아름다움을 담아본 것은 다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붉나무는 생각지도 않은 우리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붉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작은 교목으로서 높이는 7m쯤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기록을 보면 수고 10m, 줄기의 흉고직경 0.3m라는 비교적 굵은 나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작은 교목

우리는 나무를 관목과 교목으로 흔히 나누어서 말하는데 교목도 이것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말하는 일이 흔하다. 즉 매우 작은 교목이라 하는 것은 성숙했을 때 그 나무의 높이가 7m쯤에 이르는 것이고, 만일 7~15m쯤 되는 나무라면 그것을 소교목으로 말을 하고, 15~25m쯤 되는 것이라면 중교목으로, 25~50m 높이라면 대교목으로 말하고, 50m 이상이면 매우 큰 교목으로 표현한다는 문헌상의 기록으로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세계적인 규모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열대지방의 키높은 나무까지도 넣어서 생각하는, 또 미국 서부지방에 자라는 세콰이아 등 침엽수라든가 호주에서 자라는 유칼리 등 높은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분류한 내용으로 본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수고 기준에 다름도 있다.

▲붉나무의 유리알 단풍. 1997. 10. 28.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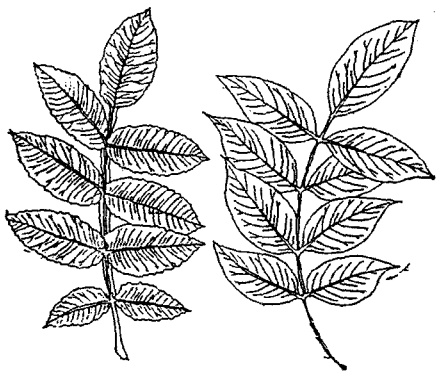


▲붉나무. 1997. 10. 28. 수원

이런 기준에서 말한다면 붉나무는 매우 작은 교목에 소속된다. 나무라는 것은 지구표면에 있어서 생물로서 가장 그 키가 높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수고가 가장 높은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간신히 대교목에 들어가는 격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나무는 중교목 이하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3. 형태

여기산의 붉나무는 기억으로서는 수고가 2~3m를 넘지않은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붉나무는 가지가 드문드문 발달하고 잎은 서로 어긋나며 길이가 40cm에 이르며 엽축에는 날개가 있고 소위 우상복엽(羽狀複葉)이며 소엽은 7~13에 이르는 기수우상복엽이다. 잎의 모양은 다소 긴 타원형이며 길이 5~12cm에 이르고 너비는 2.5~6cm로서 잎표면에 짧은 털이 있고 뒷면에는 갈색의 털이 있다.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드문드문 발달한다. 열매는 핵과로서 색깔은 황적색이고 황갈색의 잔털이 표면을 덮고 있다. 붉나무에 매우 가까운 옻나무는 핵과의 표면에 털이 없는 것이 다르고 이것이 붉나무와 구별이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붉나무의 핵과는 익으면 짠맛이 도는 흰 색의 껍질로 덮이고 10월에 익는다. 이것의 맛을 보면 시고 짠맛이 도는데 아이들은 흔히 이것을 빨아먹기도 한다.



◀붉나무(좌)와 옻나무(우).

4. 명칭

붉나무를 한문자로는 염부목(鹽膚木 또는 鹽麥木)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열매가 소금으로 덮여 짠 맛을 준다는 거기에서 얻어진 이름으로 짐작한다. 즉 소금 염, 피부 부, 즉 소금맛의 흰 피부로 덮인다는 것인데 그럴듯한 명칭이다.

그러면 붉나무라는 명칭은 어디서 온 것일까. 붉나무의 핵과가 붉은 색이기 때문에 붉나무라는 말을 얻었을까. 붉나무의 붉자는 틀림없이 붉다는 색깔을 뜻하는 것이다. 필자는 붉나무 명칭이 붉은 그 핵과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붉나무 잎의 단풍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붉나무를 홍미(紅美)라고 말한다. 다시말해서 홍미란 붉나무의 또 하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이것은 붉은 색깔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선조들은 좋은 점에 착안해서 붉나무의 이름을 이와같이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단풍나무의 단풍. 1997. 10. 21. 강원도 장릉

5. 오배자

붉나무의 잎에는 흔히 황갈색의 벌레집이 달리는데 이것을 오배자(五倍子)라고 하며 약으로 쓰거나 염료로 사용한다. 붉나무의 가지와 잎에는 오배자 벌레가 붙어 혹을 만드는데 이것을 오배자라고 말을 한다. 또 이것을 오구(五構), 문합(文蛤), 백충창(百蟲

▲진달래 단풍. 관악산.

▲마가목. 1998. 10. 30.

倉)으로도 말한다. 이 벌레집은 탄닌원료로서 주요하고 탄닌의 함량이 50~80%에 이른다고 하며 가죽을 다루는데도 쓰이고 잉크원료 또 약용으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재료인 것이다. 오배자 혹을 만드는 벌레는 진디물의 일종인데 붉나무의 잎겨드랑이에 알을 놓고 그 알이 유충으로 되어 조직에 파고 들어가서 벌레집을 만들게 된다. 과거 중국에서는 오배자를 생산하여 수출을 하기 위해 대규모로 붉나무를 재배하고 진디물을 접종한 적이 있다.

필자는 강원도지방에서 붉나무의 많은 분포를 보고 또 강원도의 산간 농가에서는 가을이 되면 붉나무에 기생하는 오배자를 따서 햇볕에 말리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명주실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한 일이 많았는데 그때 명주실의 무게로서 그 값을 평가했던 것이다. 오배자를 울궈낸 물 속에 명주실을 집어 넣으면 그 무게가 불어났다. 확실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100g의 명주실을 오배자용액에 담그고 건조시킨 뒤에 110g 에 육박하는 무게로 불어나서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요사이에 와서는 소를 팔 때 물을 먹여서 그 중량을 증가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심심치 않게 텔레비젼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명주실을 오배자의 용액에 담구워서 그 중량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서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하여튼 당시는 그러한 일이 일반적인 것이었고 그것을 탓하지 않았던 것이다.

6. 붉나무의 단풍

붉나무는 키도 크지 않고 따라서 나무줄기도 굵지 않아 특별한 사용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붉나무는 가을에 있어서의 그 단풍이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운 까닭에 조경수종으로서 돋보이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길가 쓸모없는 땅에 그다지 쓸모없는 나무들과 함께 자라면서 가을의 단풍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붉나무이다. 만일 붉나무가 온 산을 차지해서 덮는다면 그것은 황홀한 경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외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본 적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숲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을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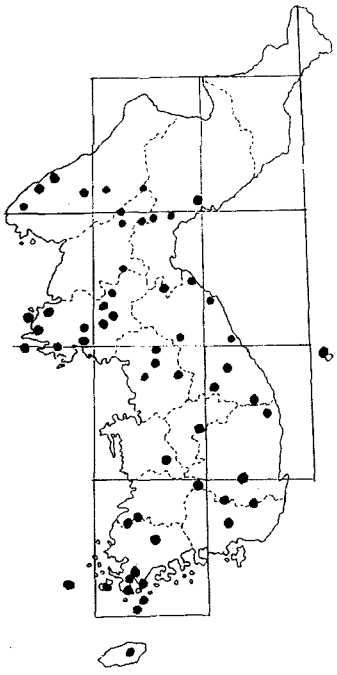
옻나무의 단풍도 여간 아름답지 않다. 옻나무과에 소속되는 옻나무나 붉나무는 그 황홀한 단풍의 아름다움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 장점을 살리는 붉나무의 이용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사진으로서 붉나무의 단풍을 보이는데 그 붉음이란 가을 햇빛을 깨끗하게 여과시키는 놀라운 채색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 있어서 나는 붉나무의 단풍을 위대한 것으로까지 추켜 올려서 내다보고 싶은 것이다. 가

을의 단풍이라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 주는 크나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와같이 생각하여 나는 가을의 단풍을 새로운 각도로서 내다보고 싶다. 그 채색은 신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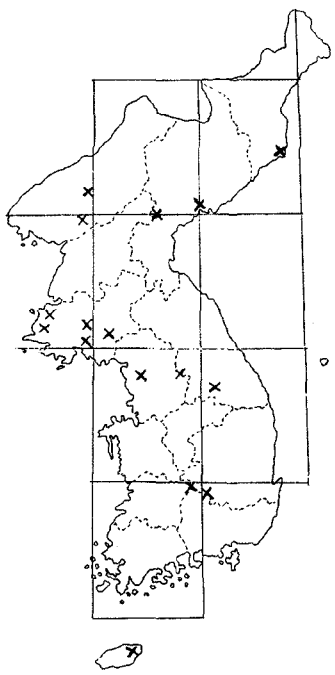
단풍을 흔히 우리는 홍어(紅於)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의 뜻은 더욱 더 붉다는 뜻인데 붉나무의 명칭이 홍미(紅美)라고 하는 것과 무언가 그 이름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것이 있어서 붉나무의 진가가 더욱 더 높게 나타나는 것같다.

7.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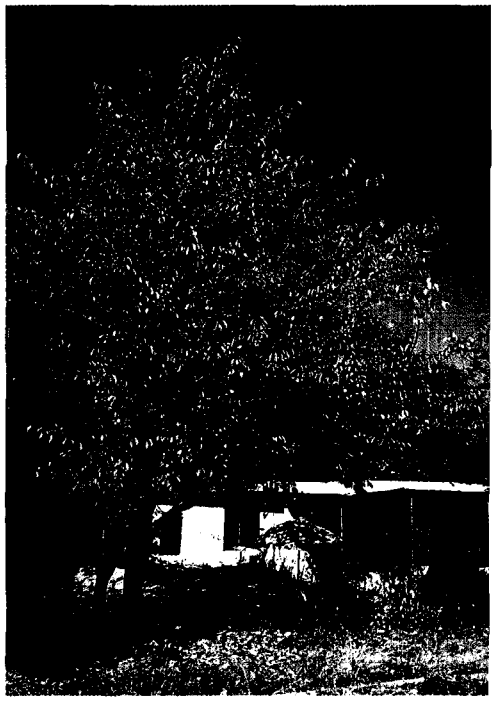
참고로 여기에 옻나무와 붉나무의 분포도를 제공한다. 이것은 정태현 박사의 도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곳 필자의 생각으로서는 옻나무의 분포에 있어서 좀 누락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곳에 보인다. 옻나무는 그 쓰임새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옮겨 심어지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 이 지도상에 보이는 옻나무의 분포빈도보다는 더 많은 분포빈도를 옻나무는 보일 것으로 믿어진다. 세계적인 분포의 양상을 보더라도 붉나무도 분포면적이 넓고 옻나무 또한 분포면적이 넓다. 붉나무의 분포는 일본, 한반도, 대만, 만주, 중국, 인도, 히말라야에 이르고 옻나무의 분포도 이에 질새라 중국, 인도, 서장(西藏), 안남(安南)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등이어서 분포의 영역은 이 두 수종간에 막상막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옻나무는 붉나무에 대조해서 당연코 더 큰 교목이다.



▲붉나무의 분포.



▲옻나무의 분포.



▲붉나무의 붉음. 1997. 10. 27

몇 해 전의 일이다. 30대 쯤으로 생각되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 처음부터 그 분의 전화로 들리는 목소리는 약간 격양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여보세요 임경빈박사인가

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쓴 책 나무백과 1에 옻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보면 붉나무와 옻나무를 대비시킨 그림도 실려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내가 관악산에 오른 일이 있는데 그때 옻나무를 손으로 만져 옻이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무척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관악산의 그 옻나무는 선생님이 그린 붉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붉나무는 소엽과 소엽을 연결하는 잎대궁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쉽게 옻나무와 구별이 된다고 했으며 붉나무는 손으로 만져도 옻이 오르지 않는 까닭에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생님이 말하는 붉나무는 그것이 붉나무가 아니고 옻나무이며, 옻나무로 말한 것은 그것이 붉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붉나무를 만져서 쉽게 옻이 오르고 그로서 고생을 하였다면 그 나무는 붉나무가 아니고 옻나무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붉나무는 옻이 오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무백과 1에 실려진 내용이 정정되기를 바라고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붉나무는 보통사람에게는 옻을 오르게 하지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예민한 피부알라지 현상을 가져서 붉나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나무로부터도 피부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붉나무가 옻나무인 것이 아니라 붉나무로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피부염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분은 내 책에 실은 그림이 잘못된 것이라고 억양을 높여서 항변을 하였던 것이다. 내가 잘못이라면 붉나무도 사람에 따라서는, 즉 피부반응이 예민한 사람에 있어서는 옻과 비슷한 피부염을 줄 수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그 분은 전화를 오래도록 끊지 않고 나의 붉나무와 옻나무의 설명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하였고 나는 일방적으로 그 전화를 끊을 수도 없어서 말하자면 약간의 곤혹을 치른 일이 있다.

이것은 내가 붉나무에 관해서 얻은 하나의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이다. 붉나무가 과연 보통사람에게까지 피부염을 심하게 일으켜주는 것인지 그것은 더욱 알아 보아야 하겠다.

다음에 나무백과 1에 실린 붉나무와 옻나무의 잎 그림을 참고로 다시 한번 이곳에 제공해 둔다. 조경수

▲활엽수림의 가을색. 1973. 가을 일본.

▲칡의 가을. 1997. 10. 23.